

53 달란트의 비유

Chapter

마 25:14~30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76장 (기대)

오늘 배울



말씀

1. 주님께서 나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압니다.
2.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모두가 각기 달란트(talent: 재능)를 가졌다고 자랑하는군요.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적어 봅시다.



말씀을 이해하기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의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맡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으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했는지 저희와 회계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그들의 충성됨으로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땅에 감추어 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큰 책망을 받고 달란트도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쫓겼습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회, 환경 등을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달리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요?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하신 사실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맡기실 뿐 아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9~10)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As each one has received a gift, minister it to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1 P 4:9~10)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롬 9:4~5)

(고전 12:8~11)

(엡 4:7~1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시고 그들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허락하신 달란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로마서 9장 4~5절을 읽고 적어 봅시다.
2. 그러한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예. 왕, 부자, 선지자등).
3.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롬 1:19~20, 2:15, 전 3:11)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4.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
(친구가 보는 내달란트, 가족이 보는 내달란트, 내가 생각하는 달란트 등)
5.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무언가 남길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 25:28~29)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조금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데 여기서는 이러한 세상 논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섯 달란트 가지고 열 달란트 남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또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깨달은 만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깨달은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조금 주신 것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서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순종하면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책임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맡겨진 사명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도 그들의 할 일이 각각 맡겨졌는데 그들이 거듭남으로서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누가복음 19장의 므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므나씩 열 명에게 나누어주었다는 말은 똑같이 한 므나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므나를 가지고 열 므나를 남기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므나를 가지고 다섯 므나를 남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므나를 수건에 싸아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열 사람이 모두 똑같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의 모든 사람은 한 므나씩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므나를 가지고 열 므나를 남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므나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반만 바치고 받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므나를 땅에 싸아 두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열 사람 인데 세 종류로만 나타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본다는 말입니다. 즉 100% 자기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생애를 50%만 주님을 위해 바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므나만 달랑 가지고 온 사람은 내어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육신도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 주시며 육신에 필요 한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상급을 주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을 조금씩 깎아 먹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달란트

아이작 왓츠(Isaac Watts)의 아버지는 아들 아이작이 시를 쓰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손찌검까지 해가며 아이작이 시를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에게 시는 영혼과 같은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였기 때문에 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숨을 멈추게 하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왓츠의 가족들은 성경을 읽은 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이작은 생쥐가 방울목걸이를 들고 고양이에게 달려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시에 곤궁한 쥐가 있었네. 목걸이어 그의 기도를 들어 주렴!”

형제들은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으나, 아버지는 몹시 비통해 했습니다. 아이작은 곧

“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는 시를 쓰지 않으리!”

라고 읊조려 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아이작은 어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 은혜롭고 심오한 영혼의 찬송을 작사하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웬말인가 날 위하여”(141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115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391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52장)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목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A large, empty,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writing prayer requests.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A large, empty,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writing about the process of prayer and any responses or thanksgiving.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A large, empty,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writing about the results of prayer, such as received words or meditation.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목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